

일획 (One Stroke)

임상빈 (Sangbin IM)

www.sangbinim.com

1.

21 세기 인공지능 시대, '**사람다움의 가치**'에 대한 성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진실되고 그래서 뿌듯하다'는 삶의 태도이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반영물인 우리에게 분명한 건, 이제는 더욱 기계를 활용하거나 기계와 공존하거나 기계에 의지하는 세상이다. 즉, 기계는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산적인 동료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득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계는 사람을 위한 도구다. 아직까지는. 예컨대, 예술은 사람이 창조한다. 그렇다면 태양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을 위한 재료일 뿐. 그러나 태양을 보고 시인이 품격 있는 시를 쓰면, 그 시는 예술이다. 드디어 일종의 표현으로 사람을 통해 승화되었으니까.

그렇다면 동시대를 숨 쉬는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사람다운 모습일까? 이에 대한 고민 앞에 방편적으로 기계는 사람을 비추는 유용한 거울이다. 즉, 이 둘을 상대적인 대립항으로 상정하고 비교하면 '**사람됨의 풍경**'이 더욱 명료해진다.

대표적인 두 개의 축,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 아직까지 기계는 '인공노동(AL, artificial labor)'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비해 '**인공의식(AC, artificial consciousness)**'이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인공 이미지**'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여 도출하는 '**폭발적인 생산성**'을 기대한다. 반면, 사람은 '사람노동(NL, natural labor)'과 '사람지능(NI, natural intelligence)' 이상으로 '**사람의식(NC, natural consciousness)**'이 충만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사람 이미지**'를 통해 아무리 열심히 작업해도 생산량은 빈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창의성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우는 '**자의식 과잉**'을 기대한다. 그래, 사람은 자아의 환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는 예술적으로 승화하면 비판보다는 갈망의 대상이다. 예컨대, 주관적 각성이 예술이 되는 경지.

둘째, '**인생 이야기**'! 우리는 '**인공 이미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기대한다. 이를테면 단계적인 절차에 입각한 뛰어난 성능과 높은 가성비로 완성된 '**완벽한 겉모습**'을 중시한다. 반면, 우리는 '**사람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 경험한 지난한 과정**'을 기대한다. 이를테면 해당 시대를 관통하며 고군분투한 한 개인의 꿈과 좌절, 그리고 열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의 우여곡절**'을 중시한다. 그래, 사람은 오류투성이이다. 그리고 이는 예술적으로 승화하면 제거보다는 연민의 대상이다. 예컨대, 객관적 실패가 예술이 되는 경지.

정리하면, **'사람 가치'**는 관점에 따라 여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특정 **'맥락판'**에 좌우된다. 예컨대, 1917년 작가 뒤샹(1887-1968)이 미술 전시를 위해 구매한 기성 제품 '소변기'를 전시하며 샘(Fountain)이라고 명명했던 작품은 '사람 이미지'로 총명한 잘 알려진 예술이다. 이는 "나"라는 한 명의 특정 사람 작가가 그때 거기(당대의 미술계)에서 일종의 '사고'를 쳤는데 그게 그만 뜨거운 예술담론의 화두가 되어 사람의 한 역사(미술사)에 기록되었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작품(소변기)은 이제 대체 불가한 유물로서의 위상(기호가치)을 부여받았다"라는 일종의 위인전 에피소드이다. 그러나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슬기롭듯이, 단순히 이 위인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같은 위인이 될 수는 없다. 한 예로, 같은 모양의 '소변기'라고 해서 다른 사람 작가가, 혹은 기계가 이를 뒤샹의 '소변기'와 등가의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물론 이 모든 건 **'사람 제국주의'**, 즉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결국, 기계가 끊임없이 양산하며 아무리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줄지라도 일차적으로 그건 '인공 이미지'로서 '사람 이미지'의 **'자의식'**과 **'인생 이야기'**가 결여되었다. 따라서 후자에 부여되는 **'일인 기업가의 순수예술 아우라'**와 여기서 유통되는 **'한정판 찐 사람 브랜드'**는 '사람 제국주의' 시대, 아직까지 전자가 넘을 수 없는 아성이다. 그래, 오늘도 난 내 그림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한없이 반짝이길 바란다.

2.

이번 전시명은 **'일획(One Stroke)'**이다. 내 그림은 삶에 대한 통찰을 꿈꾸며 궁극에는 보다 본질적인 '일획성'에 주목한다. 이는 **'일획이 만획이고 만획이 일획'**이라는 명말 청초의 작가 석도(1642-1707)의 '일획론'과 통한다. 그렇다.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나다. 혹은,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고 이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룬다. 비유컨대, 이는 모두를 아우르는 이론을 표방하는 **'초끈이론'**인 양, 결국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건 하나의 선, 즉 0 차원 입자로 고정된 점이라기보다는 연결되거나 끊어지며 움직이는 1 차원 끈이다. 혹은, 정갈하게 두 손을 하늘로 합장하고 내 심지를 굳히며 특정 기운을 발동하여 결의를 다잡는 **'선사상'**이다. 분명한 건, 유달리 하나의 획에 긴 시간 주목하며 기운의 불을 지피다 보니, 개인적으로 참 많은 걸 내려놓고 참 많은 걸 얻었다.

그림은 수행이다. 한 획마다 내 존재의 의미를 번민한다. 돌이켜보면, 내 부모님은 '나'를 낳고자 하신 적이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저 보통명사 '사람'을 바랬을 수밖에. 그런데 이런, 고유명사 '임상빈'이 태어났다. "어, 여기가 어디, 이게 뭐야?" 이와 같이 의도와 무관하게 그저 던져진 우리를 철학자 하이데거(1889-1976)는 **'피투(被投)된 존재'**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월이 가며 점차 의식이 자라나니 이젠 없던

욕심도 생긴다. “기왕 태어난 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 열심히 살아야지...” 이와 같이 이제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자 스스로 던지는 우리를 그는 ‘기투(企投)된 존재’라고 부른다.

그림은 세상이다. 애초에 일획이 빈 화면에 더해지면 비로소 ‘한 우주의 빅뱅’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비유컨대, 내 그림은 바로 ‘다중우주’의 향연이다. 혹은, ‘내 안의 수많은 생각들’, ‘서로 다른 작은 아이들’, 아니면 ‘나와 너, 우리를 아우르는 함께 사는 세상’이다. 물론 맨 처음 던져진 획(피투된 존재)은 고개를 갸우뚱, 아직 그 미래를 모른다. 그렇지만 그 획은 일종의 업보로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니 그저 나름 책임질 뿐, 도무지 쉽게 없앨 수가 없다. 물론 한 우주가 성장하고 발달할 때면 좌충우돌 별의별 단계를 다 겪게 마련이다. 예컨대, 처음에는 붉은 색감이 전신을 감싼다. 그러다 선회하여 푸른 색감으로 변모한다. 이와 같이 때에 따라 의식과 무의식이 춤을 추며 알게 모르게 노선이 수정되고 미래가 바뀌며 조금씩 개별자로서 특성화(기투된 존재)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련의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산할 때가 온다. 그래, 이제 이 모습에 책임져야지. 그렇게 그림은 완성된다.

그림은 인생이다. 이번 전시에서 내 그림은 특히 위로 향하는 방향에 주목했다. 비유컨대, 한 그림은 ‘한 명의 얼굴 초상화’이다.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듯이, 일종의 나이테처럼 그동안 켜켜이 쌓인 많은 이야기보따리를 머금은다. 돌이켜보면, 내 삶을 영위하며 나를 보듬어준 수많은 붓질, 색감, 촉감이 결국 지금 여기 이 모양을 형성했다. 물론 그 지난한 자라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종종 기계적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때때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았으니. 그러나 누군 안 그러랴? 결국,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걸 가치롭게 만드는 미다스의 손, 즉 ‘예술적인 승화’만이 답이다. 그래, 누구나 열과 성을 다한다면 모두의 인생, 나름 다 찬란하다. 마찬가지로 서로 책임질 얼굴은 다르지만 내 모든 그림, 스스로 고유한 기준에 따라 각자 ‘뿌듯한 만족감’으로 충만하길 바란다.

그림은 기운이다. 무럭무럭 자라나며 힘이 뻗치는 아이인 양, 내 그림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원형질(protoplasmic) 기운을 담아낸 일종의 추상적인 ‘잠재풍경(Latent Scape)’이다. 이를 보다 생생한 경험으로 시각화하고자, 특히 촉각적 노동의 가치에 주목했다. 비유컨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의 크기와 무게를 증대하고 또렷하게 근육선을 가다듬듯이, 작업 과정 중에 한없이 매만지며 양감이 넘치는 부조적인 결을 구축하다 보면 모종의 쾌가 몰려온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내게 ‘그림 스킨십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를테면 ‘끈적한 물성’과 ‘다층적 흔적’의 ‘회화적 촉감’에 대한 갈망.

그림은 단꿈이다. 아이의 기질과 꿈은 다양하듯이, 내 그림은 여러 모양의 마음 풍경에 잠재한 ‘원형 구조(porta-structures)’의 설레는 가능성이다. 내 경험상, 그림을 그리며 서서히 구축되는 모양에 은유적, 연상적, 혹은 확률적인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술적인 상상력'을 음미하면, 그야말로 생생한 '우주여행' 따로 없다. 그렇다면 비유컨대, '잠재풍경'은 아직 어떻게 자라날지 알 수 없어 마냥 설레는 생각의 '씨앗'이다. 앞으로 발현될 특성을 연쇄적이거나 산발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DNA 적인 확률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록된 '청사진'이다. 마침내 수학 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해당 구조의 작동 원리를 내포한 '절대 공식'이다. 무엇이든 흥미롭게 연상하고 애정으로 다듬으며 호흡으로 생성하는 '잠재적 가능성(latent possibility)'이 충만한 'X 함수'다. 필요에 따라 바라는 대로 어떤 내용물도 유려하게 담아내는 넉넉한 '그릇'이다.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찍어내는 '판형틀'이다. 때때로 복잡한 세상에 매몰되어 길을 잃는 우리에게 나름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나침반'이다. 수많은 선택지에 결정을 미루며 불안할 때 다시금 본질에 충실하자며 좋은 말 듬뿍해주는 든직한 '멘토'다.形形色색 수많은 사연을 모으고 응축하며 추출한 원액으로 만든 몸에 좋은 '종합 비타민'이다.

그림은 근본이다. 이와 같이 '잠재풍경'을 음미하다 보면, 내 그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소위 우리를 '내 인생의 무림고수'로 탈바꿈하는 예술적인 '훈련장', 즉, 내 마음의 '도서관'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더욱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화기관의 '개별적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총체적인 작동원리'는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 전문의는 후자를 숙지하고 전자를 대하는 전문가이다. 그리고 마치 봉어빵 판형틀이 있으면 계속 이를 찍어낼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이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현명하다. 결국,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호도되기보다는 일종의 '유형학(typology)적 접근'으로서 전체를 아우르며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는 '거시적인 조망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껏 우리 내면의 '심미안'을 고양하면, 처음에는 도무지 오리무중, 대책 없던 미지의 영역이 점차 선명해질 수도.

그림은 마음이다. 동시대 작가로서 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꾼다. 결국, 내 그림은 사람이 사람을 연민하는 '사람가치의 탐닉'이다. 이를테면 갑자기 던져진 '일획'과 찬찬히 다듬는 '다획'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돈오점수(頓悟漸修)'적인 수련을 바탕으로 비로소 '피투된 존재'는 '기투된 존재'로 거듭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마치 호랑이가 사람으로 인해 가족을 남기듯이 '촉각적인 노동'으로 그 실제적 증거력을 획득한다. 그렇다면 일획은 나 자신, 즉 얼굴과 인생, 내가 이룬 업적이다. 혹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에는 나를 초월하여 궁극의 모양으로 환원되며 무엇이든 연상 가능한 원형질인 '잠재풍경', 즉 통찰의 근본원리와 무궁무진한 적용실체를 담보하는 '형이상학적 이데아'이다. 부디 이번 전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나누며, 기왕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정으로 보듬고,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진정으로 모색하는 알찬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